



우수 봉사자 수상자

- 봉사자 부문

13년째 장애인 봉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천사

김정애씨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조용히 들어주는 것과 잠시나마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위에 작은 위로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언제나 살펴보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김정애씨가 봉사를 시작한 것은 13년 전 용인 요한의 집에서 뇌성마비 환자를 돌보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온가족이 모두 천주교 신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곳곳에 실천해 나가는 것을 신념으로 온 가족이 봉사에 참여하며 심장수술비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정사목도 하였고 또 전가족이 참여하여 근이양증 환자 가정돕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정애씨가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것은 9년전부터 이다. 성모병원과의 인연이 되어 현재 강남성모병원을 오가며 또한 청담동 성당에서 6년째 가정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다. 기도와 교리지도, 대세, 영세인도, 영적관리, 연도, 입관예절, 장례미사, 장지수행, 임종도와드리기를 통하여 사후간호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유가족에게까지도 전화위문, 가정방문, 사별가족모임, 기념일 기억해주기, 추모미사 등을 통하여 정성스럽게 돕고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의 투병생활과 그에 따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김정애씨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손길은 이



김 정 애(마리아 고레띠)

내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새로이 일깨우고 잔잔한 감동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김정애씨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조용히 들어주는 것과 잠시나마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위에 작은 위로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언제나 살펴보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과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손을 내밀어 나 아닌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환우가 필요로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그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참 사랑의 소유자이다. 그녀는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환자를 치유해주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심리와 자아성장,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봉사자로서의 개발을 늦추지 않는다. 봉사자와 환우 사이에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환우를 위하여 헌신하는 김정애씨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며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는 이념구현의 첨병이다. 🐦